

# 인터넷 시대의 중국 지식인 네트워크의 형성과 영향

李弘揆\*

##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당대 중국 지식인 집단 분화의 삼층 도식 - 제도, 행위자, 네트워크
3. 중국 지식인 네트워크의 형성 및 분화
  - 3.1 지식인 집단의 사상적 분화의 심화
  - 3.2 지식인 집단의 온라인 결집과 오프라인 공간의 구축
  - 3.3 지식인 네트워크의 다층적 형성- 지식인, 네티즌, 권력엘리트의 3자 결합
4. 지식인 네트워크의 정치사회적 영향 - 노선투쟁의 대중화

##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중국의 지식인들은 그 활동 영역을 기준으로 나누다면 크게 보아 관방 지식인, 학계 지식인 그리고 공공 지식인 등으로 나눌 수 있다.<sup>1)</sup> 사실상

\*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1) 중국 지식인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자인 쉬지린(許紀霖)은 중국의 지식인 영역을 이론계, 학술계, 사상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許紀霖, “中國知識分子論” 《ICCS Journal of Modern Chinese Studies》 Vol.3 (1) 2011, pp.1-2.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중국적 함의가 들어가 있어 그대로 가져다 쓰기엔 다소 모호한 개념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는 쉬지린의 이러한 분류를 일부 수정하여 관방 지식인, 학계 지식인, 공공 지식인으로 분류하였다. 관방 지식인이란 중앙당교, 중국사회과학원 및 각 지방 사회과학원 등 중국 공산당과 정부 등 관방의 정책과 이데올로기 영역에서 주로 종사하고 있는 지식인들을 의미한다면, 학계 지식인이란 역사, 문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등 중국의 각 대학 학과에 소속되어 학문적 연구에 주로 집중하는 지식인들을 의미할 것이다. 이에 비해 공공 지식인은 관방 영역에서 벗어나 민간 시민사회 활동에 주력하되 학계 지식인처럼 전문적 학문

우리가 연구대상으로 삼는 중국의 지식인 집단이란 공공 지식인을 의미한다. 이들은 개혁개방의 가속화 과정에서 국가의 비호 혹은 사적 이익 추구 하에 전문가의 기능만 수행하는 관방 및 학계 지식인과는 다르다.<sup>2)</sup> 물론 쉽게 추정할 수 있듯이 어떤 특정의 중국 지식인이 공공 지식인이라 평가받는다 고 해서 그가 절대로 관방 지식인이나 학계 지식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관방 연구기관에 종사하면서 정부 정책에 관여하거나 중국의 각 대학에 소속되어 전공 분야에서 명성을 쌓아온 지식인 가운데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높여온 지식인들도 적지 않게 존재한다.<sup>3)</sup>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중국의 공공 지식인이란 그의 소속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인 지식인으로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사상을 추구하며 사회적 발언과 참여를 해온 지식인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의 공공 지식인들은 오늘날 어떻게 집단적으로 결집되고 분화되고 있을까?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다양한 중국 지식인 집단의 형성 계기는 무엇이고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세력화를 유지, 강화하는가? 또한 이처럼 결집되고 분화되어 형성된 중국의 지식인 집단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중국 공공 지식인들의 분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보다 현실적 설득력이 있을까?

중국 지식인에 대한 기존 분석들은 이에 대하여 대체로 개혁개방 시기의 다양한 역사적 맥락에서 지식인들이 사회적 이슈들에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었는지 그 사상적 분화에 주목해왔다. 예를 들면 런젠타오(任劍濤)는 중국의 지식인들이 1980년대의 급진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의 3가지 세력에서 1990년대 이후에는 자유주의와 신좌파의 양대 세력으로 변화되었다고 평가한 바

영역을 탈피하여 중요한 공공의 문제들을 다루는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다.

- 2) 이문기는 중국 지식인의 자율성은 증대되었지만 지식의 상업화, 국가의 통제와 포용 등으로 중국 지식인이 국가에 대한 대항세력으로서 '시민사회' 주체로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비판한다. 이문기, "중국 지식인과 국가관계의 변천: 체제 수호세력인가 시민사회 추동세력인가?", 전성홍 편, 《체제전환의 중국정치》, 서울: 에버리치 홀딩스, 2010.
- 3) 예를 들면, 중국사회과학원에 소속된 연구원들이 이에 해당한다. 중국사회과학원은 국무원 직속의 연구기관으로 그 신분이 자유롭지 못한 것 같지만 실제 중국사회과학원의 연구원들의 이념과 세계관은 자유주의에서 마오쩌둥주의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독립적인 지식인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데 대체로 주저하지 않는다.

있다.(任劍濤 1999, 35) 이에 비해 쉬여우위(徐友漁)는 90년대 후반기까지 중국의 지식인은 자유주의와 신좌파의 이원적 대립이었다면 민족주의 사건과 국학열(國學熱) 등으로 인해 21세기 진입 이후에는 자유주의와 신좌파 외에도 문화적 보수주의 세력이 등장하여 삼각관계로 재편되었다고 평가한다.(徐友漁 2007) 쑤궁친(蕭功秦)은 개혁개방 이후 당대 중국의 지식인들이 1980년대 중반 민주화 문제를 둘러싸고 야기된 자유파와 신권위주의의 분화, 1990년대 중반 이후 시장화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자유파와 신좌파의 분화 등 두 차례의 사상적 분화를 거쳐 자유파, 신보수주의파, 신좌파의 3가지 그룹으로 나뉘었다고 설명한다.(蕭功秦 2012)

그러나 오늘날 중국 지식인 분화의 현실은 이러한 설명들보다 더 복잡해진 것 같다. 우선, 현재 중국 지식인 사회에는 이제까지 다양한 사상적 흐름이 형성되어 왔다. 이미 1980년대 중반에 출현한 자유주의 계몽사조, 1980년대 후반에 출현한 신권위주의 사조, 1990년대 중반에 출현한 신좌파 사조, 1990년대 후반에 출현한 신민족주의 사조, 2000년대 초에 출현한 문화적 보수주의 사조, 그리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민주사회주의 사조 등 6가지 사조가 나타나 바 있다.<sup>4)</sup> 둘째, 대도시의 지식인들은 일군의 비슷한 성향의 인물들끼리 함께 공동의 학술 및 사교 공간이나 비평 매체, 혹은 연구 기관 등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지식인 집단이 더욱 세분화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시장화 이후 대중매체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발전하면서 지식인들이 매체를 중심으로 대중적 영향력을 넓혀왔다. 특히 인터넷과 통신 기기를 포함하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서 디지털 공간이 지식인들의 새로운 활동공간으로 부상하였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지식인의 분화도 가속화되었다.(최은진 2012, 203-204)

특히 본고는 인터넷 시대라는 역사적 국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중국에서 인터넷은 공공 지식인 주도의 여론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4) 최근 쑤궁친은 개혁개방 이래 등장한 다양한 사조(思潮)들을 분석함으로써 더욱 더 분화된 중국 지식인 그룹의 현 단면을 보여주려 했다. 蕭功秦, “困境之礁上的思想水花——當代中國六大社會思潮析論”, 《社會科學論壇》 2010年8期, pp.57-77.

되었기 때문이다.<sup>5)</sup> 기실 오늘날 중국의 인터넷 발전은 매우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2002년 5,910만 명에서 2005년 1억 명을 넘어섰고 2012년 말 현재 중국의 네티즌은 5억 6,400만 명에 이르며 2012년 1년 동안에만 네티즌 수가 5,000여 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제 중국은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23.2%, 아시아 지역 사용자의 55.4%를 점유,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인터넷 사용자를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스마트폰 사용자도 4억 2,000만 명에 달하며, 이 인원은 전 세계 인터넷 사용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그뿐 아니라 각종 홈페이지 수도 268만 개가 넘고, 블로그와 SNS 이용자들도 빠른 속도로 폭넓게 늘어나고 있다.<sup>6)</sup>

그렇다면 이러한 인터넷 시대라는 역사적 국면은 중국 지식인의 분화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다양한 사상적 경향을 가진 지식인들이 온라인 공간을 활용해 어떻게 집단적 그룹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대중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인터넷 시대의 중국 지식인 그룹들의 분화는 중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본고는 이처럼 인터넷 시대라는 역사적 국면에서 중국 지식인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분화의 구체적 양상 그리고 그 정치사회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우선, II장에서는 당대 중국 지식인 집단의 분화에 대한 분석의 틀로 제도, 행위자, 네트워크의 삼층 도식을 제시한다. 본문의 핵심에 해당되는 III장에서는 이러한 분석틀에 기초하여 당대 중국 지식인 집단이 오늘날까지 다양한 지식인 네트워크로 다층적으로 형성 및 분화되어온 역사적 양상을 설명한다. 우선 지식인 집단의 사상적 분화가 1990년대 이후 심화되어온 과정을 설명하고 이들이 2000년대에 대중적으로 확산된 인터넷 기반을 배경으로 온라인에서 결집하고 오프라인 공간의 구축을 통해 이를 공고히 하는 양상을 설

5) 인터넷의 도입으로 공산당에 의해 위계적으로 조정되던 정보와 담론은 이제 통제를 벗어나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해 생성되거나 교류됨으로써 중국에서도 여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6) 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CNCC), 《中國互聯網絡發展狀況統計報告》(2013年1月), <http://www.cnnic.net.cn/hlwfzyj/hlwxzbg/>

명한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구축된 지식인 네트워크가 지식인 집단에만 머물지 않고 네티즌, 권력엘리트와 결합하는 지식인-네티즌-권력엘리트의 3자 결합과정을 설명할 것이다. 특히 본고는 신좌파 지식인-청년 및 서민 네티즌-보시라이(薄熙來)의 3자 결합을 만들어낸 ‘우여우즈샹(烏有之鄉)’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이러한 지식인 네트워크가 다층적으로 형성되어오면서 그 정치사회적 영향으로 중국 내 노선투쟁이 권력엘리트의 범위를 넘어 대중화되면서 더욱 첨예해지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향후 중국정치체제의 변화의 맥락을 예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 2. 당대 중국 지식인 집단 분화의 삼층 도식 — 제도, 행위자, 네트워크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의 시각에서 보면 제도란 ‘행위자들 간의 정형화된 관계’(patterned relation among actors)를 의미하는 것으로, 따라서 제도는 행위자들의 선택을 제약한다. 즉, 행위자들이 이익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실제 행위자들의 전략이나 이익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제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자들은 실제로 자신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제도적 배경의 제약 하에서 가능한 만족스러운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행위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며 행동한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회적 결과는 다양한 집단들, 이익, 사상 그리고 제도적 구조 사이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간주한다 (Thelen and Steinmo 1992, 5, 7-12).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정치적 진화는 ‘가지치기 과정’(branching process)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Ikenberry 1988, 224).

상술한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당대 중국의 모든 행위자들 특히 지식인들은 개혁개방 이래 규정된 '사회주의시장경제'(社會主義市場經濟) 즉 공산당 일당 지배하의 시장화 체제라는 제도적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지식인 집단들은 중국에서 개혁개방 이후 형성되어온 제도적 구조와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되었고 또 새로운 제도적 변화 특히 정치적 변화를 만들어 오고 있기도 하다.

실제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래 공산당의 지배 하에서 시장화로의 제도개혁을 계속해왔다. 특히 1992년 초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는 천안문 사건으로 경직되었던 이념적 제약을 해소하는 계기로 작용했고 사회주의 정치체제도 시장경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바로 1992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14차 당대회에 반영되어 '사회주의시장경제'라는 중국 체제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가 이루어졌다. 이는 이후 중국 경제체제를 계획과 시장의 공존체제로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계획체제를 시장체제로 적극 전환하겠다는 것을 의미했다.<sup>7)</sup> 그 후 10년 동안 시장화 개혁을 가속화해온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으로써 중국 경제체제를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완전히 편입시킴으로써 중국의 시장경제 수준을 크게 높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시장경제체제 확립은 중국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 하에서 중국 공산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에서 막강한 권위와 힘을 가진 전국적인 조직으로 중국의 각급 정부뿐 아니라 중국사회의 모든 기관이나 조직을 궁극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인들이 소속된 학교, 연구기관, 각종 언론, 이익 단체 등도 중국 공산당의 통제 하에 놓여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지난 30여년에 걸쳐 이루어져 온 시장화 개혁으로 중국은 대대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그 결과 중국사회의 계층구조는 급격히 다양화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익집단이 출현하여 왔다. (김도희 2007) 시장화의 가속화로 지식인들의 전문적 역할이 더욱 요구되었고 이는 지식인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종류의 지식인 조직들이 번성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익이

7) “中共中央關於建立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若干問題的決定”, 《人民網》(www.people.com.cn)

다원화됨으로써 중국인들 특히 지식인들의 사고가 다양해지고 있음도 물론이다. 중국 지식인 사회의 다원화도 함께 가속화되어온 것이다.

결국, 중국 공산당의 통제권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중국 지식인들의 자율성과 다원화도 제고되어왔다고 할 수 있는데 서로 모순된 두 가지 현상이 어떻게 동시에 가능했을까? 이는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통제 하에서도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는 위계적 권력구조의 각 영역과 권력 당국에게 기형적으로 권력이 분산되어 실행되는 '분절된 권위주의체제'(fragmented authoritarianism)<sup>8)</sup>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공산당 지배하의 '분절된 권위주의체제'에서는 지식인 조직이나 기구들 역시 중국 당국 즉 중국 권력층과 분절된(fragmented) 방식으로 연계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1990년대 이후 중국 지식인 사회는 공산당의 통제권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획득하고 이익 확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이다.<sup>9)</sup>

즉 1992년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수립 이후, 중국은 '분절된 권위주의' 하에서 시장화가 가속화되는 와중에 사회적 다원주의는 확대되어왔는데,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1990년대 대부분의 중국 지식인들이 1980년대와는 달리 경제 발전을 인정하고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변해갔던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제도적 맥락들이 심화되면 될수록 이러한 제도적 맥락들은 상충되었다.

이러한 충돌을 심화시킨 새로운 계기는 우선 1990년대 후반 이후 중국에서도 가속화된 경제적 '세계화'(globalization)의 맥락이다. 1997년 동아시아경제위기의 발발로 동아시아발전국가 모델의 효용성이 의심받게 되자 중국은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어온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한편으로는 WTO

8) David M. Lampton & Kenneth Liberthal eds., 《Bureaucracy, politics and decision making in post-Mao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특히 ch.1을 보라.

9) 민간 지식인들은 정치적, 종교적 활동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는 중국 당국에 도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Edward X. Gu, "Social capital, institutional change and the development of non-governmental intellectual organizations in China," Edward Gu and Goldman eds. *Chinese Intellectuals Between State and Market* (New York: RoutledgeCurzon, 2004), pp.21-42.

가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유무역 질서를 확대하고 세계경제에 편입해 가려고 시도한다. 그러자 중국 지식인 사회 내에서 이런 과정을 건전한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으로 보는 견해와 그와 반대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소수의 특권층을 오히려 강화시킨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하게 된다. (백승욱 2008) 사회주의시장경제가 심화될수록 체제의 모순이 노출됨에 따라 그 해법을 둘러싸고 중국의 지식인 집단은 자유주의와 신좌파로 크게 분화하게 되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모순에 대한 논쟁이 더욱 심화된 또 다른 계기는 세계화의 와중에서 인터넷과 스마트 폰, SNS 등 정보통신 시스템이 중국에서도 확산된 정보화의 국면이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제도적 통로가 구비됨에 따라 지식인들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다양한 정보와 지식 그리고 인간적 감정을 교류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국의 지식인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네티즌들로부터 광범위한 공감대와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정치제도적 맥락 즉 ‘분절된 권위주의’가 온존한 상태에서 경제적 세계화, 사회적 다원주의가 심화될수록 초기의 자유주의 대(對) 신좌파로 분화된 중국 지식인 집단은 더욱 세분화되어 다양한 집단으로 분화하기에 이른다.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중국의 지식인 집단들은 ‘분절된 권위주의’라는 제도적 특징을 활용하여 공산당 중앙 혹은 지방의 주요 지도자들과 연계하는 한편, 세계화와 다원화라는 맥락의 심화과정에서 생성된 여러 제도적 통로를 활용하여 대중과의 연계도 넓히고 심화해왔다. 더욱이 인터넷 등 디지털 정보시스템이 중국에서 공고화되면서 지식인 집단들의 다양한 분화는 ‘네트워크(network)’라는 새로운 형태로 재편되어 나간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지식인 네트워크가 형성해간 것이다.<sup>10)</sup>

10) 여기서 네트워크(network)란 기본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교점(node)들이 연결(link)되어 있는 집합”을 의미한다. 마누엘 카스텔, “정보화주의, 네트워크, 네트워크 사회” 마누엘 카스텔 지음, 박행웅 옮김, 《네트워크 사회: 비교문화적 관점》, 한울아카데미, 2009, p20.

여기서 지식인 네트워크란 중국의 지식인 혹은 지식인 집단들만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지식인이나 지식인 집단이 '교점'(node)이 되어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서 지식인들끼리는 물론이고 대중들과 혹은 권력 엘리트들과도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단 형성된 네트워크는 그 구성요소인 노드들의 행위를 제약하는 일종의 '구조'로서도 작동한다. 오늘날 중국의 지식인들이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서 대중과 혹은 권력 엘리트들과도 다층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결정하게 된다. 네트워크는 이처럼 오늘날 중국 지식인들의 집단행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적 속성을 잘 표현해주는 개념이다.<sup>11)</sup>

물론 이렇게 '구조'이기도 한 네트워크는 '자기조직화'의 메커니즘을 갖는 '메타-행위자(meta-actor)'로서 다시 작동한다. 이러한 행위자로서의 네트워크는 그 실체가 고정된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부단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동태적인 '과정'을 만들어낸다(카스텔 2009, 21-23).<sup>12)</sup> 네트워크에서 비롯되는 권력을 네트워크 권력(Network Power)이라고 한다면, 네트워크 권력은 주변에 네트워크를 아직 구성하지 못한 행위자들을 대거 흡수하면서 더욱 큰 권력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고 그 흐름을 통제한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 권력은 하나의 메타 행위자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새로운 게임 규칙 즉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sup>13)</sup>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의 지식인들이 만들어내

11) 행위자들은 행위를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집단적 가치들을 중요시하며 이에 따라 행동한다. 사회적으로 집단행동의 논리가 창출되는 것이다. 맨슈어 올슨 지음, 윤여덕 옮김, 《집단행동의 논리》,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3.

12) 또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에 따르면 네트워크는 일종의 '행위자'로 이해할 수 있다.

13) 첫째, 네트워크를 하나의 행위자로 보면, 네트워크 권력은 '네트워크로부터 나오는 권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네트워크 권력은 여러 노드들이 모여서 네트워크 형태로 존재하는 행위자가 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성하지 못한 노드들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력이다. 쉽게 말해 '끼리끼리 모이는 힘'인 셈이다. 둘째, 네트워크를 과정 차원에서 보면, 네트워크 권력은 '네트워크상에서 발휘되는 권력'이다. 즉 네트워크상에서 권력은 무조건 노드의 덩치가 크거나 링크의 숫자가 많아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사이에서 차지하는 노드의 위치나 기능 또는 링크의 형태 등과 같은 요소에서 권력이 생성되는 것이다. 이른바, 네트워크에서 '통(通)'하게 하는 권력 즉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고 그 흐름을 통제하는

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들은 ‘자기조직화’의 논리로 움직이면서 오늘날 중국의 새로운 정치사회적 변화들을 추동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최근 중국의 정치경제적 및 사회적 변화의 상징이었던 충칭모델은 신좌파 지식인들과 민족주의자들, 마오쩌둥주의자들이 결합된 지식인 네트워크가 위로는 보시라이 등 태자당(太子黨) 일부 세력과 아래로는 대중 및 청년 네티즌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대두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충칭모델의 좌절은 잘 알다시피 신자유주의 성향의 전문가 및 지식인들을 포함하여 문화대혁명 노선에 우려를 표명해온 정치적 자유주의자들의 지식인 네트워크가 위로는 원자바오(溫家寶)와 같은 반(反)보시라이 세력 그리고 아래로는 도시 중산층 세력과 결합되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 지식인 네트워크의 형성과 분화의 역사적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자. 가장 우선적으로는 중국 지식인의 사상적 분화를 간단히 살펴보고 이들이 인터넷 공간을 통하여 결집되고 독자적인 오프라인 공간을 구축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들이 전개해온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아래로는 네티즌 대중과 그리고 위로는 권력 엘리트와 결합하여 네트워크를 다층적으로 구축해온 동학을 드러내보고자 한다.

---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셋째, 네트워크 체제 혹은 구조 차원에서 보면, 네트워크 권력은 ‘네트워크 자체가 행사하는 권력’으로 이해된다. 네트워크 내부의 어떤 특정 행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네트워크에 스며들어 있는 일종의 비인격적 권력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권력은 기술적인 형태의 코드나 프로토콜 또는 기술표준의 형태를 띠기도 하고, 아니면 사회적이거나 문화적인 차원에서 일종의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김상배, “네트워크 세계 정치이론의 모색”, 《국제정치논총》 제48집 4호, 2008, pp.47-48.

### 3. 중국 지식인 네트워크의 형성 및 분화

#### 3.1 중국 지식인 집단의 사상적 분화의 심화

모든 이들이 개혁개방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들은 대체로 3가지 세력이었다. 첫째, 마오쩌둥 지지 세력 가운데 문화대혁명을 여전히 옹호하며 덩샤오핑 세력과 완전히 대척점에 섰던 사람들이다. 둘째, 마오쩌둥 지지 세력 가운데 덩샤오핑 세력과 손을 잡은 투항세력 즉 화궈펑(華國鋒)을 정점으로 하는 이른바 범시파(凡是派) 세력이다. 셋째, 문화대혁명과 마오쩌둥에 비판적이었지만 개혁개방이 공산당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저항한 광범위한 보수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sup>14)</sup> 이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교조적 입장을 지지하며 중국이 문화대혁명 이전의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유제와 계획경제 고수를 외쳤다. (蕭功秦 2003)<sup>15)</sup>

그러나 문화대혁명이 종료되고 개혁개방 시기로 진입되었을 때 중국의 지식인 집단은 대체로 그 사상적 세계관이나 정치적 경향이 동질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80년대 초 대부분의 중국 지식인들은 문화대혁명에 대한 반성을 통하여 슬선하여 인간적 존엄과 가치, 자유, 계몽 그리고 사상해방을 외쳤으며 정치적으로도 4인방 숙청, 대외개방, 시장경제와 민주정치 등을 주장했고 이러한 지식인 집단의 동질적인 목표는 대중적인 지지도 받았다.<sup>16)</sup>

14) 陳子明, “憲政旗幟下的左右翼聯合陣線”, 《鎮導者》第18期, [http://www.360doc.com/content/11/0411/17/822062\\_108875253.shtml](http://www.360doc.com/content/11/0411/17/822062_108875253.shtml)

15) 이들은 대부분 덩샤오핑 및 원로들과 밀저반 관계를 맺고 있던 당내 이데올로그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 인물로 후차오무(胡喬木), 우렁시(吳冷西), 솜푸(熊復), 후성(胡繩) 그리고 덩리쥘(鄧力群) 등으로 오랫동안 고위 정치가의 이론적 자문을 맡아온 사람들이다.

16) 1980년대에는 계몽적 지식인들이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극좌적 노선에 반대하고 사상해방과 계몽을 부르짖으며 정치적 민주발전을 요구하고 경제개방과 정치개혁을 적극 지지했다. 이것은 생존조건에 동질성에 기인하며 문혁의 역심리가 작용한 측면이 있고 당대 지식인의 자유계몽사조 즉 사상해방사조의 기반이 되었다. 김도희, “지식계의 사회변혁 담론: 신좌파와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전성홍 편, 《체제전환의 중국정치》, 서울: 예

비교적 동질적이던 개혁개방 초 중국 지식인 집단이 분화하게 되는 계기는 1980년대 중반 형성된 지식인 내부의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입장 차이였다. 즉 시장화 개혁을 지지하던 자유주의 지식인들 가운데 자유주의가 급진화하는 것에 반대하고 민주화는 시기상조라고 보았던 이른바 신권위주의 지지파 지식인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안정이 절대적이라고 보아 개발독재 체제를 불가피한 것 혹은 필연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sup>17)</sup>

1989년 천안문 민주화운동의 실패 이후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의 붕괴와 정치적 혼란을 목도하면서 많은 중국의 자유주의 지식인들은 보다 현실주의적이고 냉정한 태도를 지향하게 된다.<sup>18)</sup> 특히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1992년 남순강화 이후 시장화 개혁의 가속화 과정에서 자신의 전문적, 지적 능력을 활용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지위를 얻게 된 인물들로 민주화 요구를 보류하였던 신권위주의 세력과 합쳐져 중국 지식인 집단 내에 신보수주의 즉 신우파(新右派) 세력을 형성하게 된다.(蕭功秦 2012) 한편 이 과정에서 신우파에 비해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입장을 보류하고 있는 자유주의자들 역시 존재한다. 예컨대 자유주의중도파로 불릴 수 있는 지식인들이나 아예 정치적 문제에는 침묵하고 경제적 자유주의 실현에 집중하는 지식인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에서 본격화된 시장화 개혁은 중국 지식인 내부에 민주주의에 대한 재인식의 공간을 새롭게 만들었다. 시장화의 가속화는 필연적으로 자유주의의 공간의 확대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에 부응하여 자유주의 지식인들은 정치체제의 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특히 1990년대 후반기에 이르면 여전히 질서와 안정을 중시하는 신우파 세력(신보수주의적 자유주

버리치 홀딩스, 2010, p.206.

17) 이러한 입장은 齊墨 編, 《新權威主義-對中國大陸未來運命的論爭》(台北: 唐山出版社 1991)을 참조하라.

18) 蕭功秦(蕭功秦)의 《정치적 낭만주의와 이별을 고하다(與政治浪漫主義告別)》는 급진적 자유주의를 정치적 낭만주의 즉 비현실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蕭功秦, 《與政治浪漫主義告別》(武漢: 湖北教育出版社, 2001). 주쉬에친(朱學勤)의 《도덕이상국가의 재멸망(道德理想國家的復滅)》도 급진적 자유주의자가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변모하는 사상적 변화를 잘 드러낸 글이다. 朱學勤, 《道德理想國家的復滅-盧梭到羅伯斯庇爾》, (上海: 上海三聯書店 2003).

의자)들과는 달리, 중국의 국가권력 집중을 비판하면서 민주화의 실현을 당면 과제로 주장하는 자유주의 세력이 다시 부상한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허칭롄(何清漣)이나 친후이(秦暉)와 같이 권력의 부패와 분배의 불균형을 함께 지적 하면서 그 해결방법으로 민주화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자유주의 좌파 성향의 인물들이 존재하는 한편, 류준닝(劉軍寧), 쉬여우위(徐友漁) 그리고 류샤오보(劉曉波)와 같이 자유주의적 근본주의 입장에서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를 비판하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정치적 자유주의자들이 존재한다.

이와는 달리 '평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따라서 중국의 불공정한 시장경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주장해온 새로운 지식인 집단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신좌파 지식인들이다. 본래 마오이즘(Maoism)으로의 회귀를 주장한 구좌파와 다르다는 의미에서 신좌파는 시장경제를 부정하지는 않되 농민과 빈곤층에 대한 사회복지 확충 그리고 그를 위한 국가의 역할 확대를 강조 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세력과의 구분되는 것이었다.<sup>19)</sup> 신좌파 세력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1997-1999년의 대대적인 국유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자의 실업 증가, 1999년 나토(NATO)군의 중국 대사관 오폭 사건, 2001년 WTO 가입 등 세계화의 시기를 거치면서 더욱더 급진적이고 민족주의적 경향이 짙어졌다. 특히 나토군의 중국 대사관 오폭 사건을 계기로 신좌파 지식인 집단은 국가주의-민족주의자들, 그리고 과거 덩샤오핑의 시장화 개혁에 전면적으로 반대해온 구좌파 세력과의 연계가 강화되었다. (蕭功秦 1999, 105-106)

이러한 가운데 신좌파 내부도 포스트모더니즘과 서구형 뉴레프트(New Left) 사상을 주로 받아들여 세계 자본주의적 모순과 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신좌파 온건파와 중국을 자본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민중주의와 반서방 민족주

19) Li He, "中國的新左派及其對政治解放的影響", <http://www.douban.com/group/topic/4443504/> 본래 신좌파는 자유주의좌파라고 불리기를 원했던 지식인들로부터 형성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실제, 간양(甘陽)은 이 글에서 중국 신좌파의 주류는 자유주의좌파에서 유래되었다고 설명한다. 甘陽, "中國自由左派的由來", 《明報》 2000年10月1日, 10月2日.

의에 입각하여 반자본주의 혁명에 주력해야 한다는 신좌파 급진파로 분화된다. (蕭功秦 2012) 신좌파들은 문화대혁명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하는데 특히 신좌파 급진파들은 문화대혁명이야말로 대중민주주의(중국식 표현으로는 이른바 大民主)를 통해 자본주의의 출현을 방지하려고 한 혁명이었다고 간주하기도 했다. (蕭功秦 2002)

반면, 신좌파 온건파 지식인들의 상당수가 최근 중국 공산당의 권위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러한 범주의 일부 지식인들은 민주사회주의론을 주창하면서 그 현실적인 대안으로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체제 구축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중국이 시장사회주의 체제로 변모한 만큼 이에 걸맞게 사회주의 정당이 포함된 다당제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다. (謝韜 2007) 최근 신좌파가 적극 지지했던 충칭 모델의 비민주성이 드러나면서 민주적 사회주의의 실현이 화두가 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오늘날 중국의 지식인 집단은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 수준,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 수준 그리고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 수준 등을 각각 찬성, 중도, 반대로 분류해 본다면 아래 표에서 분류해본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許紀霖 2011, 4)<sup>20)</sup>

20) 쉬지린(許紀霖)은 자유주의와 신좌파의 두 세력으로 중국 지식인을 분류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하고 지적하면서 현재 중국 지식인은 5가지 사상적 파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즉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시장경제 구축과 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발전주의 세력, 하이에크의 자유시장 이론을 추종하며 입헌민주와 정부역할 축소를 주장하는 정치적 자유주의세력, 서구자본주의를 극복하여 사회주의 전통으로 돌아가자는 신좌파 세력, 시장경제를 지지하되 국가역할을 강조하며 자유뿐만 아니라 평등의 가치를 함께 주장하는 좌파 자유주의 혹은 사민주의 세력, 그리고 권위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정치적 보수주의 세력 등이다.

<표1> 중국 지식인의 분화

|      |    | 권위주의에 대한 태도 |                   |  |   |
|------|----|-------------|-------------------|--|---|
|      |    | 찬성          | 중도 혹은 모호          | 반대   |   |
| 시장경제 | 찬성 | 찬성          | 중국 공산당 지도부(개혁파)   |  | 사회민주주의자<br>(謝韜, 楊帆)                             |
|      |    | 반대          | 신우파<br>(蕭功秦, 康曉光) | 자유주의 중도파<br>(朱學勤, 余世存, 余杰)<br>/경제적 자유주의<br>(張維迎, 歷以宁, 張樹光) | 자유주의 좌파(何清漣, 秦暉)<br>정치적 자유주의<br>(劉軍寧, 徐友漁, 劉曉波) |
|      | 중도 | 찬성          | 중국 공산당<br>보수파     | 신좌파 온건파(王紹光, 崔之元, 汪暉, 甘陽, 溫鐵軍, 黃宗旨)                        |   |
|      |    | 반대          | —                 | —  | —   |
|      | 반대 | 찬성          | 구좌파<br>마오주의자      | 민족주의적 좌파<br>(王小東, 房宁, 韓德強, 張宏良)                            | 신좌파 마오주의자 및<br>급진파<br>(黃紀蘇, 張廣天, 曠新年)           |
|      |    | 반대          | —                 | —  | —   |

자료) 우궁친(蕭功秦)의 견해에 기초해서 저자가 새롭게 재구성

### 3.2 중국 지식인 집단의 온라인 결집과 오프라인 공간의 구축

1990년대 말 인터넷이 중국에 소개된 이래 이제 중국의 인터넷 공간은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지식인들이 사회적 담론을 생산해내는 새로운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당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과는 달리 중국의 인터넷 환경은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인터넷 사용자도 급증하여 앞서 본 것처럼 세계 최대 수준이다. 우선 중국 당국이 인터넷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추구하기도 하지만 인터넷 산업은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IT산업이니 만큼 중국 당국으로서도 인터넷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이나 산업 육성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인터넷 공간은 일단 구축되게 되면

확대만 가능할 뿐 축소가 불가능하다. 더욱이 중국인들의 문화라고 할 ‘관씨(關係)’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갖는 만큼 인터넷을 통한 연계는 중국사회에서 더욱 확산될 것이다.(정현욱 2006)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중국 체제아래서 다른 매체에 비해 인터넷은 큰 개방성과 솔직성이 충분히 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신문이나 잡지는 출판의 적합도, 중국 당국의 검열, 상업적 이유로 인한 판매부수의 제한 등이 존재하지만 인터넷 공간은 상대적으로 포용성과 유연성이 큰 매체라고 할 수 있다. (Barmé and Davies 2004, 75-77)

따라서 인터넷 공간은 중국 지식인에게 일정한 수준의 언론 자유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지식인들은 공공장소에서 정치적 발언을 할 경우 바로 탄압을 받았던 과거의 정치적 두려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인터넷 공간이 분화된 지식인들의 집단적 유대와 연계를 크게 강화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다. (樊漢禎, 曹妍 2004, 12) 사실 인터넷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중국 지식인들이 각자의 성격에 따라 이론적, 사상적 근거지로 삼거나 논쟁의 공간이 되기도 했던 각종 지식인 잡지들은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사이버공간에 기존의 콘텐츠를 그대로 게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중국 공산당 당내 개혁파 원로 지식인들이 창간한 자유주의 계열의 <염황춘추(炎黃春秋)>의 경우 주로 중국 공산당 당사 및 당의 개혁 방향과 관련된 논쟁을 주로 콘텐츠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콘텐츠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잡지 홈페이지(<http://www.yhcqw.com/>)에 게재하고 있다. 광저우사회과학원(廣州市社會科學院)이 발행하나 신좌파 온건파 성향에 가까운 <개방시대(開放時代)>의 경우에도 잡지 홈페이지(<http://www.opentimes.cn/>)에 기존의 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놓았을 뿐만 아니라 잡지 블로그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네티즌의 반응을 유도하고 있다.

기존의 매체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중국의 각 지식인 집단들은 사회정치적 지지와 동원을 위해 사이버 공간을 주요한 활동무대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개인 블로그, 토론 웹사이트 등을 개설하거나 아예 웹진을 운영하기도

하면서 각종 현안에 대한 자파의 견해나 관련 사상, 이론 등을 게재하기도 한다. 특히 블로그(博客)는 중국에서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블로그가 지식인의 1인 미디어로서 매우 효과적인 매체이기 때문이다.<sup>21)</sup> 예컨대 2009년 천안문 민주화운동 20주년 기념으로 첸리췌(錢理群), 추이웨이핑(催衛平), 쉬여우위와 같은 중국의 비판적 지식인들이 주도한 비공개 학술토론회가 베이징에서 열렸는데 당시 이들의 비공개 토론내용이 한 참석자의 블로그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다.(莫之許 2009) 2010년부터는 중국판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인 '웨이보(微博)'가 지식생산과 전파의 주요 통로로 등장하면서 중국의 지식인들이 웨이보를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웨이보는 특히 전통적인 뉴스 미디어를 뛰어넘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개방적 통로이자 지식인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통로로 작동하고 있다. (이광수 2012)

따라서 지식인들은 블로그와 웨이보를 비롯 각종 웹사이트에 중국 정부에 대한 각종 요구를 담은 공개서한, 질의서, 성명 등을 게재하는 등 대정부 활동에서도 인터넷 공간을 적극 활용해 왔다.(이상국 2009, 276) 예컨대 류샤오보(劉曉波)등 중국의 자유주의 지식인들은 2008년 3권 분립과 직접선거 그리고 언론자유 등을 호소하는 문서인 '08헌장'을 작성하여 인터넷 상에 발표하여 인터넷 서명을 받기도 했는데 8500여명이 서명하는 등 큰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sup>22)</sup> 반면에 신좌파 지식인들도 17차 당대회를 앞두고 무분별한 개혁개방을 비판하며 전(前)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고문 마빈(馬賓), 전(前) 화학공업부장 친중다(秦仲達) 등 공산당 원로들이 후진타오 주석에게 보내는 공개

21) 2012년 말 현재 중국의 블로그 사용자는 3억 9백만 명에 달하며 이는 2011년과 비교했을 때 5873만 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중국 네티즌의 54.7%가 블로그를 활용하는 것으로 봐서는 반 수 이상의 네티즌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며 그 중 상당수가 핸드폰을 활용하여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을 만큼 블로그는 이제 중국인들의 일상이 되고 있다. 실제 2012년 말까지 핸드폰을 이용한 블로그 사용자는 2억 2백만명 규모로 블로그 사용자의 65.6%에 달하였다. 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CNNIC), 《中國互聯網絡發展狀況統計報告》(2013年1月), <http://www.cnnic.net.cn/hlwfzyj/hlwxzbg/>

22) "'08헌장' 대처...둘로 쪼개진 중 지도부', 《한겨레》 2009년 2월 24일,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340713.html>

서한을 인터넷 웹사이트 ‘마오쩌둥기치망(毛澤東旗幟網)’에 신기도 했다.<sup>23)</sup> 최근까지도 중국 지식인들이 인터넷 공간을 활용하여 집단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경향은 계속되어 왔다. 2013년 2월에도 중국 공산당 18기2중 전회에 맞춰 마오위스(茅于軾), 추이웨이핑, 허웨이팡(賀衛方) 등 100여명의 자유주의 성향의 지식인들이 서명한 공개선언문이 웨이보와 블로그를 통해 알려지며 확산되었는데, 그 내용은 3월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유엔 국제인권규약(ICCPR)을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다.<sup>24)</sup> 중국의 국가경영 비전을 제시하는 중국 공산당 당대표대회나 중국 권력교체의 최대 이벤트인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등을 앞두고 중국 지식인들은 온라인에서 결집하여 집단적인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출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 지식인들의 결집은 온라인에 머물지 않고 오프라인 공간을 마련하여 온라인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유사한 성향의 지식인들이 민간 연구기관이나 학술서점 및 학술 소모임 등을 운영하는 동시에 온라인에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자유주의 경제학자 마오위스, 장슈광(張曙光), 취우평(秋風), 환강(樊綱), 청홍(盛洪) 등이 주축이 되어 만든 천칙경제연구소(天則經濟研究所)는 중국의 대표적인 민간 경제연구소로 온라인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sup>25)</sup> 천칙경제연구소는 정례적으로 경제학은 물론 사회학, 법학, 철학 등 다양한 공개 학술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관련 서적을 출판함으로써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소는 특히 산하에 공용 사업연구센터(公用事業研究中心)를 설치하여 공공분야 민영화와 시장화 이론연구와 관련 산업 분석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교육 업무를 실시하고 정부 및 기업 등에게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이 연구소 핵심 구성원들

23) “十七大政治局委員會實行差額選舉嗎?”, 《多維新聞》 2007年8月6日.

(<http://society.dwnews.com/big5/news/2007-08-06/3144453.html>)

24) “중국 지식인 ‘인권·법치 약속하라’선언”, 《중앙일보》 2013년 2월28일.

25) 천칙경제연구소의 홈페이지(<http://www.unirule.org.cn/index.asp>)를 참조하라.

의 정책적 지향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sup>26)</sup> 천측경제연구소가 더욱 주목되는 것은 이 연구소가 자유주의 성향의 학자들 중심으로 중국 시사 문제에 대해 토론을 벌이는 웹사이트 중평망(中評網)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평망에는 경제학, 법률,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주의 학자들이 소속되어 자신의 세계관에 입각한 주장을 자유롭게 표명하고 있다.<sup>27)</sup>

한편 베이징대, 칭화대 등이 인접한 중국 베이징의 대표적인 대학가에 위치한 인문 사회과학 서점인 '만성서원(萬聖書院)'은 단순한 서점으로서만 아니라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사교 공간이자 세미나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만성서원을 창립한 류쑤리(劉蘇里)는 천안문 민주화 운동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오늘날에도 중국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지식인으로 활약하고 있다.<sup>28)</sup> 그런 까닭에 만성서원에는 유독 자유주의 지식인들이 자주 모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만성서원은 점포 내에 상당한 면적의 공간을 카페 공간으로 꾸며 지식인들의 회합과 토론 장소로 활용하고 있어 베이징의 자유주의 지식인들은 주로 이곳에서 모여 사회적 이슈들을 토론하고 있다. 이는 마치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한국의 젊은 지식인들이 대형서점보다는 각 대학가에 있는 사회과학 전문서점에서 만나던 것처럼 만성서원이 중국의 자유주의 성향의 지식인들이나 대학생들에게는 하나의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만성서원은 현재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화서점(新華書店)과 같은 국영서점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자유주의 성향의 인문학 및 사회과학 서적들이 소개되고 있다.<sup>29)</sup>

26) 천척공용사업연구센터의 홈페이지([www.ccppp.org](http://www.ccppp.org))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이 센터가 국내의 기업들에게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의 우파 지식인 집단은 자신들의 세계관을 설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주의의 신념에 따라 수익사업에도 공공연하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27) 중평망에는 신좌파 성향의 지식인으로 분류되는 학자들도 일부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이들은 소수로 구색 맞추기 같은 느낌이 든다. 중평망의 홈페이지(<http://www.china-review.com>)를 참조하라.

28) 우인화(吳仁華)의 글에는 천안문 운동 당시의 류쑤리에 대한 기억을 담고 있다. 吳仁華, “六四記憶: 我與生死弟兄劉蘇里”, 《獨立中文筆會》 2012. 6. 1 ([http://www.chinesepen.org/Article/hyxz/201206/Article\\_20120601061539.shtml](http://www.chinesepen.org/Article/hyxz/201206/Article_20120601061539.shtml))

29) 《萬聖書院网站》(<http://www.allpagesbooks.com/>)

유토피아란 뜻을 지닌 우여우즈샹(烏有之鄉)은 신좌파 특히 마오주의 성향이 강한 지식인들이 집결해 있는 온라인 활동 공간인 동시에 오프라인에서도 서점과 세미나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본래 우여우즈샹은 중국의 대표적인 민족주의 좌파 지식인인 베이징항공항천대학(北京航空航天大學)의 한더창(韓德強)이 대학원생들과 함께 2003년에 창립한 ‘베이징우여우즈샹문화전파유한공사(北京烏有之鄉文化傳播有限公司)’를 기반으로 하는데 일종의 민간 문화기업으로 등록된 이곳은 사회과학서점, 인문강좌, 학술 웹사이트 운영을 주요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한다.<sup>30)</sup> 초기만 해도 당시 한더창과 밀접한 동지적 관계를 맺고 있던 양판(楊帆), 쥐다페이(左大培) 등 중국의 대표적인 신좌파 경제학자들이 필진과 강사진으로 참여한 비주류 경제학의 시각을 다룬 사이트였지만 후에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망라하고 신좌파 온건파, 민족주의 좌파, 마오주의 급진파 등 중국 국내외의 주요 좌파 지식인들이 모두 집결하는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특히 우여우즈샹은 오프라인에서 사무실, 강의실, 서가 등을 갖추고 강좌를 개최하여 중국과 국제 시사문제, 사회주의사상 및 문화 등 주제 강연을 이미 400여 차례에 이르고 있다. 강연자는 한더창, 양판, 쥐다페이 등 경제학 분야는 물론 왕후이(汪暉), 추이즈위안(崔之元), 황핑(黃平) 등 인문학, 정치학, 사회학 등 모든 인문 사회과학 분야에서 고루 망라된 신좌파 지식인들과 장홍량(張宏良), 퉁칭둥(孔慶東) 등 마오주의자 지식인들, 그리고 해외 좌파 지식인들이 포함되었다. 한 달에 한번은 논쟁적인 주제로 여러 지식인들이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이 강연들을 녹화해서 만든 동영상 CD를 팔기도 했다.<sup>31)</sup> 또한 우여우즈샹은 사회과학서점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마오쩌둥 선집 제5권(《毛澤東選集》第五卷)<sup>32)</sup>과 같은 극좌파 계열의 금서나 공산당 내부의 참고자

30) “北京烏有之鄉文化傳播有限公司”, 《企博網》([http://wyzx.co.bokee.net/company/company\\_viewCompany/1478677.html](http://wyzx.co.bokee.net/company/company_viewCompany/1478677.html))

31) 이 내용은 필자를 포함해서 우여우즈샹을 방문했던 연구자들의 경험에 근거했다.

32) 마오쩌둥 선집 제5권은 1949년 이후 마오쩌둥의 저작을 모은 것으로 특히 1957년 반우파투쟁, 1958년 대약진 운동, 1966년 문화대혁명 등에서 마오쩌둥의 좌경적 견해가 잘 드러나 있다. 이 책은 1977년도에 마지막으로 출판되었는데 1977년 판본은 화구어평의

료, 중국의 현실을 비판하는 다큐멘터리 동영상까지 구할 수 있을 만큼 좌파 성향의 이론과 정보를 중국에서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이었다.<sup>33)</sup>

우여우즈상의 온라인 활동은 오프라인보다 더욱 활발했다. 온라인의 기본적인 콘텐츠는 우여우즈상에서 개최된 정기 강좌나 토론회의 발제문, 회의 내용, 여러 유명 좌파 지식인들과 인터넷 논객들의 논문, 에세이, 서평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우여우즈상의 다양한 콘텐츠는 분야별로 정리되어 매우 신속한 속도로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계속 게재됨으로써 네티즌들이 손쉽게 읽을 수 있다. 네티즌들은 우여우즈상의 콘텐츠를 읽고 격렬한 주장을 담은 댓글을 다는 등의 적극적인 호응을 보여왔다. 또한 우여우즈상 홈페이지에는 중국의 좌파 지식인들과 인터넷 논객들의 블로그가 연결되어 있어 지식인들 각각의 사상과 관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여우즈상 홈페이지에는 홍가희망(紅歌會網), 삼농중국망(三農中國網), 초근망(草根網), 집체경제망(集體經濟網) 등 좌파 성향의 홈페이지 웹사이트가 하이퍼링크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여우즈상이 중국의 좌파 네트워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상국 2009, 287-288)<sup>34)</sup>

중국 지식인들은 이제 일군의 비슷한 성향의 인물들끼리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학술연구 조직 및 사고 공간이나 비평 매체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지식인 집단이 더욱 세분화되어 집결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 운영의 근거가 되었다. 현재는 좌경적이라고 해서 일반 서점에서는 유통이 금지되어 있다.

- 33) 중국은 한국에 비해서도 다량의 도서가 출판되는 국가이지만 출판되는 도서의 양은 많지 않아 절판도 빠르다. 그런데 우여우즈상의 사회과학서점은 좌파 성향의 비판적 도서를 골라서 구입하면서도 책이 절판될 경우 책들을 재분하여 제공해주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경향으로 보아 이 서점은 단순히 책의 판매 목적보다는 중국 좌파들의 이론과 관점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 34) 이상국의 분석에 의하면 중국의 좌파 네트워크와 우파 네트워크는 결속력 면에서 선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 좌파는 우파에 비해 이념적 분화 정도가 비교적 뚜렷함에도 네트워크 결속력은 오히려 우파에 비해 더 강한 결속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좌파 네트워크의 강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우여우즈상인 것이다. 즉 좌파네트워크는 우여우즈상을 중심으로 한 스타(star)형 네트워크 구조에 가까운 반면, 우파는 좌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극적인 구조를 하고 있었다.

### 3.3 중국 지식인 네트워크의 다층적 형성

#### - 지식인, 네티즌, 권력엘리트의 3자 결합

오늘날 다양한 사상적 경향을 가진 중국 지식인들의 네트워크는 이제 지식인들만의 네트워크로 끝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지식인들은 아래로는 네티즌 등 대중들과 연계하고 있으며 위로는 중국의 최고위 권력엘리트와 연계하면서 지식인, 네티즌 및 대중, 권력엘리트 3자가 결합하는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과거에도 지식인, 대중, 권력엘리트의 3자 결합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1966년-1967년 문화대혁명 초기, 1976년 4.5 민주화 운동, 1978년 베이징의 봄 그리고 1989년 천안문 민주화 운동 시기에 이르기까지 지식인과 대중 그리고 권력엘리트 사이에 강한 연대가 이루어져 공동의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기도 하였다. 문화대혁명 초기의 3자 결합은 경우 급진적 지식인들이 대자보(大字報)를 쓰면 이에 대중들이 호응하여 결집하고, 마오쩌둥 등 최고 권력엘리트가 이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며 다시 혁명의 비전과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면 지식인들이 다시 대자보를 통해 최고 권력엘리트의 주장을 적극 지지하는 순서로 나아갔다. 1976년 4.5 민주화 운동과 1978년 베이징의 봄 시기에는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대자보는 문화대혁명의 종결과 개혁개방을 원하던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이는 자연스레 덩샤오핑의 복권 및 권력 강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천안문 민주화 운동을 전후하여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주류 입장에 대항하여 정치개혁을 주장하던 후야오방(胡耀邦), 자오쯔양(趙紫陽) 등이 그들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던 개혁파 지식인들과 강력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후에 이 개혁파 지식인들은 천안문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대학생과 시민들의 배후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들은 천안문 운동 과정에서도 천안문 민주화 운동 지도부와 자오쯔양 등 개혁파 정치인 사이의 매개자로 활동하였다.

이렇게 보면 역사적으로 중국 지식인, 대중, 권력엘리트 3자 결합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특징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첫째, 중국 지식인은 ‘대자보’와 같은 대중적이고 공개적인 매체를 활용하여 사회적 여론을 주도함으로써 중국 대중의 정치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둘째, 중국 지식인은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비판적 정치세력을 형성하기보다는 권력엘리트의 정책 및 사상적 참모로서 권력엘리트와 밀접한 연계를 맺어왔다.<sup>35)</sup> 따라서 오늘날에도 중국 지식인과 대중 그리고 권력엘리트의 3자 결합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중적이고 공개적 매체를 통해 지식인과 대중이 결합된 사회적 여론 네트워크와 지식인과 권력엘리트 간에 만들어진 정책적 및 사상적 연계라는 네트워크가 동시에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중국의 지식인들의 여론 주도는 근본적으로 권력 엘리트의 정치적 동원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즉, 1966년 문화대혁명 시기이든 1976년 4.5 민주화운동 및 1978년 베이징의 봄 그리고 1989년 6.4 천안문 민주화운동 등의 지식인들은 대부분 특정 권력 엘리트들과의 사전적 교감 속에서 대자보를 쓰고 사회적 요구를 외쳤던 것이다. 하지만 일단 권력 엘리트와의 유대가 약화되거나 단절될 경우 혹은 유대를 맺고 있던 권력 엘리트가 권력의 중심에서 낙마할 경우, 중국 지식인들은 매우 신중한 태도로 돌아서서 더 이상 자신들의 자유롭게 견해를 표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대중들과 지식인의 소통 수단이자 여론 형성의 유일한 수단이었던 대자보는 그 소통 방식이 일방향적이고 일시적인 매체로서 대중적 파급 범위도 제한적이고 그 파급 속도도 빠르지 않았다. 당국의 정보차단으로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당시에는 문화대혁명과 민주화운동의 광장에서 대중과 지식인의 교감의 통로로 사용된 ‘대자보’가 중요한 정보제공의 기능을 하였지만, 그 만큼 철거도 용이하여 지속적일 수도 없었고 대자보의 독자가 지역 주민과 일부 도시에 한정되어 있어 중국 전역으로 광범위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대자보는 정보가 왜곡되어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정이 불

35) 중국의 지식인들은 전통적으로 위정자의 막료로서 자리매김하였는데 지식인을 천대하였던 마오쩌둥 시기를 지나 개혁개방 이후에 이러한 경향이 재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능하여 잘못된 여론재판을 조장할 수 있는 매체였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중국 전역으로 보급된 인터넷은 대자보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대자보를 훨씬 뛰어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인터넷의 블로그와 홈페이지 등 각종 웹사이트는 중국의 지식인 집단과 개인들이 자신의 입장을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대자보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자보에 비해 더욱 지속적이고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어 광범위한 대중들에게 정보와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 중국의 인터넷이 중국 당국에 의해 통제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은 오프라인의 대자보와는 달리 게릴라식 언론운동이 가능한 체제여서 대자보를 철거하고 대자보를 작성한 지식인을 수감하던 것처럼 이제 완전한 소통 차단은 불가능하다. 특히 웨이보로 대표되는 중국식 SNS를 통해 각 지식인 집단의 주장과 논의들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고 소통되고 있다. 인터넷 공간 역시 일부 집단에 의해 의도적으로 정보가 왜곡되고 민의도 조작될 수 있으나 온라인의 대자보는 쌍방향 소통을 통하여 다양한 시각이 소통되어 왜곡된 정보도 바로잡을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sup>36)</sup>

인터넷에서 만들어지는 온라인 여론은 권력엘리트들의 주목을 받는다. 이론적으로는 중국 사회에 민의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구비되어 있다지만 온라인 공간만큼 중국사회에서 은폐된 문제들이 상시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는 공간은 없다. (張衛東 2011, 22)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들의 사생활이 고발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민간사회의 품평이 드러나는 공간인 만큼 권력엘리트의 입장에서는 인터넷 여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가 관건이며 이에 따라 중국 공산당 내 권력 투쟁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 따라서 권력엘리트들은 온라인 여론을 주도하는 지식인 집단과 밀접한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다. 권력엘리트들은 지식인 집단을 여전히 정치적으로 동원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식인 집단은 권력엘리트와의 사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개인적 이익

36) 자오귀바오(蕉國標) 베이징대 교수가 "오늘날엔 인터넷이 '민주의 벽' 구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천안문의 마르크스] ⑤ 중국 공산당의 미래", 한겨레, 2006.04.30

과 목표를 추구하려는 경향은 과거와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공간은 권력엘리트가 일방적으로 지식인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할 수만 있는 공간은 아니다. 지식인 집단들이 권력엘리트를 압박하고 자신들의 사상과 정책에 부합하는 권력엘리트를 선정할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지식인 집단들이 권력엘리트를 정치적으로 동원할 수도 있는 쌍방향의 공간이다. 지식인의 추문이 화제가 될 정도로 인터넷은 지식인 집단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대중적 평가와 여론 역시 가감 없이 소통되는 공간인 만큼 지식인들과 권력엘리트의 연계는 대중적 감시를 받는다.

결국, 중국에서 온라인을 통해 맺어지는 지식인-대중-권력엘리트의 3자 결합은 과거에 비해 다층적이고 쌍방향적으로 맺어진 것이라 더욱 지속적이고 공고화된 결합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지식인 네트워크가 대중과 권력엘리트와 지속적이고 공고화된 관계를 구축하는 실제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여기서는 중국의 신좌파 지식인 네트워크인 우여우즈샹이 아래로는 대중들과 연계를 맺고 위로는 그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서기와 연계를 맺었던 과정을 그 실례로 다루어 볼 것이다.

우여우즈샹은 공개적으로 덩샤오핑(鄧小平)과 개혁개방 노선이 오늘날 중국의 불평등을 가져왔다고 비난해왔다. 우여우즈샹은 중국 좌파들의 대표자격으로 자부하며 우파를 강하게 비판해 왔는데 그 표현이 매우 격렬해서 마치 문화대혁명 시기의 대자보나 비판투쟁<sup>37)</sup>에서 사용되던 언어가 총 동원되었다. 대신 우여우즈샹은 마오쩌둥 시대가 정의롭고 평등한 시기였다고 하며 마오쩌둥 사상에 대해 분명한 지지를 표명해왔다. 우여우즈샹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장홍량(張宏良)은 마오쩌둥이 중국의 국가정세는 물론 동방 문화와 인류 미래의 발전 요구에 근거하여 인류사회를 위해 새로운 정치투쟁 모델을 개척했는

37) 비판투쟁은 문화대혁명 기간에 있었던 비판적 폭력 행동과 파괴를 의미한다. 즉, 이는 단순한 비판 활동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상대방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식 즉 상대방에게 모욕을 가하거나 소유 건물이나 물건을 파괴하고 신체를 훼손하는 등으로 비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판대회, 가두행진, 무장투쟁, 기물 파손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비판투쟁은 심지어 살인까지 용납되었기 때문에 매우 공포스러운 것이었다.

데 마오쩌둥의 자비로움은 이미 예수와 석가모니를 초월했다라고 추어올리며 마오쩌둥을 신화화하고 있다.<sup>38)</sup>

우여우즈샹의 이러한 명확한 이분법적 태도는 온라인상에서 많은 지지와 반발을 동시에 받는 이유가 된다. 우선 개혁개방의 수혜를 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온 서민층은 물론이고 마오쩌둥 시대를 그리워하며 마오쩌둥 시대로의 회귀를 꿈꾸는 노년 및 장년층 등이 우여우즈샹의 굳건한 지지자가 된다. 또한 사회적 정의감에 넘치는 네티즌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청년층과 신진 지식인들 역시 우여우즈샹을 지지해 왔는데 여기에는 자유주의 지식인들이 개인적 자유를 내세워 치부에 앞장서왔거나 민족주의 고양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온데 반해 신좌파 지식인들이 상대적으로 청렴한데다 민족주의 선양에 앞장서 왔다는 사실도 작용하였다. 특히 학력은 높지만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저임금 임시직을 근근하며 살아가는 중국의 청년 세대는 불평등 문제에 크게 불만을 갖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논쟁이 있을 때 마다 온라인에서 신좌파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왔다.

대표적인 예가 2004년 인터넷의 논쟁판을 뜨겁게 달구었던 랑셴핑(郎咸平) 논쟁 즉 국유자산 유실 문제를 놓고 시작된 국유기업 개혁 방향에 대한 논쟁이다. (서석홍 2008) 당시 네티즌들은 초기단계부터 논쟁에 적극 개입하여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활발히 발표하였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물론 다수의 신문 잡지 등 언론 매체도 토론방 개설을 통해 논쟁에 적극 개입할 정도로 큰 사회적 화제가 되었다. 당시 국유자산 유실 문제를 근거로 국유기업 민영화를 비판한 경제학자 랑셴핑은 장웨이잉(張維迎), 저우치런(周其仁) 등 중국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로부터는 비판을 받은 반면, 90%가 넘는 절대 다수의 네티즌들로부터는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또한 이 시점에서 랑셴핑을 적극 지지하며 자유주의 경제학자들과 대립각을 세운 지식인들이 등장하였는데 이들은 바로 저우다페이, 양판, 한더창, 양빈(楊斌) 등 신좌파 경제학자들이었다.

38) 張宏良, “高天滾滾寒流急, 大地微微暖氣吹——毛澤東誕辰115周年側記”, 《張宏良的博客》 (<http://blog.sina.com.cn/zhl010>)

흥미로운 사실은 랑셴핑을 적극 지지했던 이들이 바로 2003년 우여우즈상을 창립하고 핵심 필진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핵심 인물들이었으며 2004년 랑셴핑 논쟁이 한창 뜨거웠던 당시에 한 독지가의 주관 하에 <국유자산 유실과 국유경제 발전 토론회>를 열었다는 점이다. 또한 바로 이 회의에 참석한 랑셴핑은 여기에서 중국 경제학계의 주류였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에 대한 비판과 투쟁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으며, 랑셴핑은 이후 우여우즈상에서 핵심 필진으로 포함되었다. 랑셴핑 논쟁은 경제학자들만이 아니라 각종 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언론과 평론가들이 함께 참여하였고 특히 수만 명이 넘는 네티즌들도 열렬히 참가한 바(서석홍 2008, 412-413), 따라서 우여우즈상은 이 과정에서 많은 네티즌들과 연계를 맺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11년 한 조사에 의하면 중국 네티즌의 우여우즈상 홈페이지 방문자수가 중국 내 전체 홈페이지 가운데 2373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여우즈상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졌다.<sup>39)</sup>

랑셴핑 논쟁 이후에도 우여우즈상의 필진들은 많은 사회적 논쟁 속에서 중국 내 좌파와 민족주의, 마오쩌둥주의 세력을 대변하면서 더욱 더 많은 네티즌들과 연계를 맺어왔다. 그 과정에서 우여우즈상의 필진은 이름 있는 학자 뿐 아니라 작가, 기사는 물론이고 퇴직 관원과 일반 네티즌 가운데 재야의 비평가들까지 확대되어 갔다. 일반 대중과 네티즌들은 우여우즈상이 운영하고 있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면서도 우여우즈상과의 연계를 맺기도 한다. 특히 우여우즈상 서점에는 마오쩌둥 경전과 중국의 근현대사 그리고 중국 국내외 좌파 학자들의 저서들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데 관련 서적을 고르는 과정에서 서점의 종업원이나 경영진들이 접근해오기도 한다. 상술했듯이 우여우즈상은 정기적으로 강연회나 토론회를 공개적으로 개최하여 네티즌과 대중들의 오프라인 참가를 독려한다. 회의의 주제는 문화대혁명, 마오쩌둥 시대의 성과 등이 단골 주제이며 각종 시사적 쟁점이 계속 다루어져 왔다. 또한 우여우즈상

39) “烏有之鄉”, 《維基百科》 각주 3참조. (<http://zh.wikipedia.org/wiki/%E4%B9%8C%E6%9C%89%E4%B9%8B%E4%B9%A1>)

에서 열리는 각종 강연회나 토론회 가운데 일부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회원가 입을 하여야 참가 자격이 주어지는데 회원으로 가입한 네티즌들은 더욱 깊은 소속감을 느껴 우여우즈상에서 활동하게 된다. 우여우즈상은 또한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딱딱한 강연회나 토론회 외에도 영화나 드라마 상영회를 매주 진행하기도 하고 단체 관광단을 조직하기도 하는 등 여러 대중적 연계 활동을 추진하면서 세력을 확대해왔다.<sup>40)</sup>

특히 우여우즈상 네티즌들의 단체 관광단은 중국 사회주의혁명의 ‘성지’들을 돌아보는 ‘홍색 관광’으로 2011년 공산당 창당 90주년을 전후한 시점에서 전국적으로 큰 화제를 일으켰다. 우여우즈상이 기획한 홍색관광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2011년 4월 말 당시 80여명의 우여우즈상 관광단이 충칭(重慶)을 방문하였다는 점이며 특히 충칭시 공안국을 주요 방문 장소로 삼았다는 것이다.<sup>41)</sup> 우여우즈상의 운영자 중 한명인 판징강(范景剛)을 대표로 유토피아 회원들은 당시 충칭에서 부패와의 전쟁의 명분하에 진행되어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던 범죄소탕(打黑) 현황을 견학했고 중국의 붉은 네티즌들과 유토피아를 대표해 충칭 공안국에 붉은 현수막을 증정하기도 했다. 유토피아 홍색 관광단은 충칭시의 범죄소탕을 사법절차를 무시한 공안통치라고 비판해온 중국 내 우파 지식인들과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와 같은 자유주의 성향의 언론을 극렬히 비난하며 마오쩌둥과 충칭의 당서기 보시라이를 찬양하였다.

우여우즈상은 여기서 특히 보시라이가 오로지 당과 인민만을 위해 충칭시를 다스리고 있으며, 앞에 놓인 중요 과제들을 해결해나가며 “진정한 공산당이 돌아왔도다!”라고 외칠 정도로 보시라이의 충칭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주의로의 회귀의 길을 폭넓게 모색하고 있다고 찬양했다. 그렇다면 우여우즈상과 보시라이 충칭시 당서기의 연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이었을까?

충칭의 정책노선 이른바 ‘충칭모델’의 등장에 일찍 관심을 가지고 보다 과학적인 의미를 부여한 쪽은 중국 내 이른바 ‘신좌파’ 온건파 계열의 지식인 그룹

40) 이는 필자를 포함하여 우여우즈상에 방문했던 연구자들의 경험을 종합한 것이다.

41) “周主任等重慶市公安局同志迎接烏有之鄉紅色网友”《博訊新聞網》2011年 5月10日。  
(<http://boxun.com/news/gb/china/2011/05/201105101342.shtml>)

이었다.<sup>42)</sup> 예컨대 추이즈위안 칭화대(淸華大) 교수는 충칭모델의 핵심으로 국유경제와 민영경제의 공동 발전 즉 혼합경제 체제의 구축으로 국부와 인민의 재산을 함께 향상시켜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실질적인 실현을 이루었다고 높게 평가했다.<sup>43)</sup> 신좌파 경제학자 양판은 충칭시의 당교 교수인 쑤웨이(蘇僞)를 자신의 재직 대학인政法대학(政法大學)에 초청하여 충칭의 다양한 정책들을 설명하는 강좌를 개설하고 후에 이 강의와 자신의 논평을 엮어 책으로 출판하였다. (蘇僞, 楊帆, 劉士文 2011) 역시 중국의 대표적인 신좌파 지식인인 왕샤오광(王紹光)은 '과학적 발전(科學發展)'을 모토로 새로운 중국식 사회주의 즉 '중국식 사회주의 3.0'이 시작되었으며 충칭모델은 바로 그 전형적인 사례 모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王紹光 2011)

그러나 충칭모델에 대한 보다 확고한 정치적 지지는 중국 신좌파 가운데 보수적인 세력인 민족주의적 좌파 및 모택동주의자들에 의해 확대되었다. 상술한 신좌파 온건파 지식인들은 유명 지식인으로 우여우즈샹의 필진 중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데에 반해 사실상 우여우즈샹의 핵심 운영자들인 신좌파 보수파들이 충칭의 정책노선에서 주로 주목하는 분야는 '사회주의 이념의 선전 활동(唱紅)'과 '범죄소탕(打黑)'이다. 사회주의 이념의 선전은 시장자유주의 이념에 대한 헤징(hedging)이며 범죄소탕 역시 공산당이 영도하는 현 사회주의체제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관료부패 척결이라고 본 것이다.<sup>44)</sup> 특히 우여우즈샹의 핵심 인물인 장홍량(張宏良)은 충칭의 '사회주의 이념 선전과 범죄소탕(唱紅打黑)'이 중국 공산당의 유일한 정치적 출로라고 평가한다. 그는 본래 사회주의체제의 자기개선이 되어야 할 개혁개방 정책이 실제로는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산당 집권의 자기파멸을 가져올 정치개혁 요구를 야기함으로써 개혁이 오히려 중국 공산당을 타도하고 사회주의를 소멸시키는 정책의 대명사

42) 충칭모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이홍규, "충칭모델의 등장과 성과 - '중국모델'의 혁신의 관점에서 본 합의", 《국가전략》 제18권 3호, 2012.

43) "重慶模式、經濟民主與自由社會主義——訪淸華大學公共管理學院教授崔之元", 《商務周刊》2009年 第22期.

44) "房寧：重慶"唱紅打黑"解", 《人民論壇政論雙周刊》(總第344期) 2011年10月25日.  
(<http://www.jinshashui.com/html/zqms/5569.html>)

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그는 충칭모델이 살아나면 중국사회주의도 살 것이요 충칭모델이 망하면 중국사회주의도 망할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하였다. (張宏良 2011) 이러한 가운데 중국 내 좌파들은 또한 보시라이(薄熙來) 충칭시 당 서기의 지도력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충칭모델의 등장을 보시라이 개인의 성향과 정책 비전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sup>45)</sup>

우여우즈샹 사이트는 보다 적극적으로 보시라이의 '충칭 모델'을 지지하고 보시라이를 자신들의 정책노선을 실현해 줄 지도자로 받들었다. 우여우즈샹은 2011년 말까지 충칭모델 관련 토론회를 세 차례나 개최하고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충칭모델 관련한 내용들을 적극적 홍보하고 보시라이 충칭시 당 서기의 지도력을 크게 찬양하였다.<sup>46)</sup> 우여우즈샹에 소속된 인물들 가운데 개인적으로도 충칭과 인연을 맺은 인물도 많아졌다. 추이즈위안의 경우, 충칭모델의 발전에 직접 참여하기 위하여 칭화대 교수직을 휴직하고 충칭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고문으로 정책에 참여하는 적극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충칭모델을 중국모델의 새로운 판본이라고 찬양했던 리시광(李希光) 칭화대 교수는 보시라이에게 뉴욕타임스 편집장을 소개시켜주는 등 보시라이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sup>47)</sup> 더욱이 보시라이에 대한 해임을 '반혁명 정변'이라고 공개 비판했던 쿵칭둥(孔慶東) 베이징대 교수와 우여우즈샹의 핵심적인 시사평론가 스마난(司馬南) 등의 경우 충칭시의 자금을 지원받은 의혹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쿵칭둥은 국가안전국에서 5일간 조사를 받았으며, 충칭 정부로부터 받은 '충칭모델' 연구비 100만 위안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홍량, 쿵칭둥, 쓰마난 등은 보시라이가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진입할 경우 중앙정부의 요직을 약속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蘇仁彥 2012)

이러한 가운데 우여우즈샹 사이트가 보시라이와 충칭으로부터 재정적 지원

45) “重慶的發展令人震撼”, 《大公報》 2009年3月30日.

46) 우여우즈샹은 2010년 12월 11일, 2010년 12월 26일, 2011년 8월28일 충칭모델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47) “薄熙來與紐時關係不一般 曾為前總編慶90大壽”, 《明鏡周刊》 2012年12月3日.  
(<http://news.have8.com/article/6265468.html>)

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우여우즈샹의 초기 핵심 필진이었던 양판은 보시라이 사건 이후 신좌파 보수파들과 보시라이 사이의 밀착관계가 드러나자 우여우즈샹의 재정 문제에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는 사실상 우여우즈샹의 재정이 충칭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sup>48)</sup> 양판은 한 인터뷰에서도 우여우즈샹의 초기 재원은 참가자들의 각출과 서적 판매비로 충당하였으나 언제부턴가 우여우즈샹의 재정 상태가 참가자들에게도 공개되지 않아서 권력 엘리트 중에서 우여우즈샹에게 경비를 지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sup>49)</sup>

결국,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여우즈샹과 보시라이 충칭시 당서기 사이에는 이미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모종의 연계가 존재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우여우즈샹이 자신들의 사상과 정책노선에 맞는 지도자를 선정하며 자연스럽게 맺어진 순수한 관계에 시작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여우즈샹이 보시라이 충칭시 당서기라는 권력엘리트와 연계하면서 물적 지원이든 권력에 대한 보장이든 지식인들의 보다 현실적 이익이 그 매개가 되었다는 점이다. 네티즌과 서민들에게 각종 지식과 시각을 제공하며 얻은 대중적 지지를 기반으로 권력엘리트가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 이익을 획득해가며 오늘날 중국 지식인 네트워크는 더욱 공고화되고 있는 것이다.

#### 4. 지식인 네트워크의 정치사회적 영향 — 노선투쟁의 대중화

48) 양판은 “충칭은 극좌 분자들이 경제적 후원을 받은 상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판은 또한 ‘우여우즈샹’이 1천명 규모의 대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그 경비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왕리권이 여러번 학자들을 충칭에 불러들여 자신을 위해 책을 쓰게 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초청했으며, 돈을 얼마나 줬는지 등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9) “陽帆：烏有之鄉是如何走向極左的？”，《共識網》2012年3月31日。

(<http://www.21ccom.net/articles/zgyj/gmqj/2012/0331/56660.html>)

중국 공산당사의 권력투쟁이 모두 노선을 둘러싼 투쟁은 아니었지만 당의 최고위 권력자의 명운이 걸렸던 권력투쟁은 대부분 노선투쟁에서 비롯되었다. 문화대혁명 당시 류샤오치(劉少奇)의 숙청 등이 대표적이고 개혁개방을 앞두고는 덩샤오핑 세력에 의해 화구어평이 숙청되었던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개혁개방 시기에도 후야오방, 자오쯔양이 정치개혁 문제를 쟁점으로 한 보수파와의 노선투쟁에서 밀려났으며 이번의 보시라이 숙청 사건 역시 단순한 권력투쟁 수준을 넘어 노선투쟁의 맥락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50)</sup> 더욱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노선투쟁 과정에서 최고위 권력엘리트가 권력의 중심에서 숙청되어 축출되는 과정에서 거대한 대중적 운동이 함께 나타났다는 점일 것이다. 1966년 문화대혁명, 1978년 북경의 봄, 1989년 천안문 민주화 운동 등이 다 최고 권력층의 노선투쟁 속에서 발생한 대중 운동이라고 본다면 중국 공산당사의 당내 노선투쟁은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니라 대중적 요구를 증폭시켜 변혁의 바람을 유발할 결정적 계기인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노선투쟁에서 유발된 대중적 요구는 노선투쟁의 한 쪽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일방적인 성격이 강했다. 1966년 문화대혁명 당시 대중은 마오쩌둥의 노선을 지지하였고 1978년 북경의 봄에서 대중은 덩샤오핑의 노선을 지지하였다. 1989년 천안문 민주화 운동 당시에는 처음으로 대중적 지지를 얻은 자오쯔양의 노선이 좌절되는 경험을 갖게 되지만 자오쯔양 등 개혁파에 대한 지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일방적인 것이었지 노선에 대한 대중적 지지도가 개혁파와 보수파로 나누는 형태로 선명하게 양분화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보시라이와 충칭모델을 둘러싸고는 대중적으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양분화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 및 서민층은 우여우즈상 등 좌파와 결합되어 보시라이와 충칭모델을 절대적으로 지지했던 반면, 도시 중산층들은 보시라이의 반대편에서 자유주의 지식인들과 결합하여 충칭모델을 비판해왔다. 도시 중산층들은 보시라이의 충칭모델을 문화대혁명 방식의 선동 활

50) 보시라이 숙청 사건의 개요와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이흥규, “보시라이 숙청과 충칭모델의 미래”, 《현대중국연구》 제14집 1호, 2012.

동과 초법적인 공포 정치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들은 대신 시장 자유화를 지지하고 이에 걸맞은 정치 민주화의 필요성을 제시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이러한 조치의 개혁을 시도했던 왕양(汪洋)의 광둥(廣東)모델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대중적 입장의 양분화는 한편으로는 지식인 집단의 사상적 분화로부터 영향을 받아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유발된 여러 논쟁이나 감정싸움 등으로 완전히 공고화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형성된 지식인 네트워크들이 생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치사회적 영향은 '노선투쟁의 대중화'라는 새로운 제도적 맥락의 생성이다. 보시라이 사건은 개혁개방의 가속화 이후 빈부격차 등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에서 고위층 내부의 노선 갈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지만, 문제는 보시라이 사건으로 드러난 노선 갈등이 단순히 고위층만의 갈등이 아니라 이미 고위층에서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그 뿌리가 깊다는 데 있다.(李平 2012) 이와 같은 '노선투쟁의 대중화'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한 것이 다름 아닌 인터넷을 통해 형성된 지식인 네트워크로 지식인들과 네티즌들은 이를 노선투쟁의 진지로 삼아 인터넷 토론방이나 블로그 등에서 공개적인 토론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예컨대 당국의 언론 검열에 항의해 기자들이 언론의 자유를 외치며 파업을 벌였던 남방주말(南方週末) 사태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둘러싸고 중국 최대의 인터넷 토론 웹사이트인 천애커뮤니티(天涯社區)에서는 자유주의 네티즌들과 좌파 네티즌들 사이의 열띤 설전이 오고갔다.<sup>51)</sup> 자유주의 네티즌들이 남방주말 사건을 언론의 자유와 정치개혁을 실시하고 헌정 체제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던데 반해, 좌파 네티즌들은 남방주말 사건이 미국 등 서방의 의도적인 조작일 수 있으며 남방주말 사건을 계기로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를 석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노선투쟁의 대중화'라는 새로운 제도적 맥락의 생성은 향후 중국

51) 남방주말 사건(南方周末事件)을 키워드로 삼아 검색할 경우 티엔야(天涯社區: <http://www.tianya.cn/search/>)에서는 수 천 개에 달하는 댓글, 블로그와 웨이보의 문장을 찾아볼 수 있다.

정치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과거 덩샤오핑은 좌우파 간 이념 논쟁으로 개혁, 개방이 위기에 봉착했던 1992년 남순강화(南巡講話)를 통해 “더 이상 쓸데없는 이념 논쟁은 하지 말자.”는 결론으로 이러한 당내 논쟁을 잠재워왔다.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 시진핑(習近平) 역시 당총서기 취임 일성으로 “공허한 담론은 나라를 망친다. 실질적인 행동으로 국가를 부흥시키자(空談誤國, 實幹興邦)”라고 일갈했다.<sup>52)</sup> 과거의 덩샤오핑과 동일한 시각과 논조로 좌·우파 간 이념 논쟁을 일단 접어두고 앞으로도 개혁개방을 견지하면서 국가 부흥에 매진하자는 메시지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시진핑의 이러한 메시지가 덩샤오핑과 같이 효력을 발휘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시진핑의 카리스마를 덩샤오핑과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겠지만, 이미 덩샤오핑의 시대와는 달리 인터넷이 대중화되어 있는 시진핑 시대에는 인터넷 공간을 통제로 드러내지 않는 한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착근되어 있는 노선투쟁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 보시라이 사건의 여파로 폐쇄되었던 우여우즈샹은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돼 운영을 재개했으며, 조만간 좌파 지식인 강연회 등 오프라인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 사이트는 운영을 재개하면서 ‘홍색(紅色)’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등 신중한 자세이지만, 사이트 부활을 계기로 개혁개방 노선을 비판해온 중국 내 좌파 세력이 다시 목소리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되고 있다.<sup>53)</sup> 결국, 향후 중국 정국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하는 노선 갈등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보시라이와 같이 직접적인 방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국 정치 중앙의 최고 권력 엘리트들과 간접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의 현 체제가 ‘사회주의시장경제’라는 제3의 경로이지만 여전히 모호한

52) “習近平：空談誤國實幹興邦”，《新浪網》2012年11月30日。

(<http://news.sina.com.hk/news/20121130/-9-2836367/1.html>)

53) “보시라이 지지 中 좌파사이트 운영 재개”，《연합뉴스》2012年12月9日。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2/09/0200000000AKR20121209067400103.HTML>)

정체성을 계속 고집하는 한 그리고 중국의 적지 않은 지식인들이 좌파와 우파의 진영 논리를 대변하면서 토론을 폭력처럼 행사하는 상황에서 각각 사회주의로의 복귀와 시장경제의 강화를 외치며 보다 선명한 사상노선과 정책노선을 고집하는 좌우파의 지식인 네트워크는 오히려 공고화될 가능성이 높다. 일당 지배체제를 고수하며 신자유주의적 정책 도입을 통해 발전주의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주류의 정책 노선이 정치적 민주화도 경제적 불평등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면에서 좌우파의 지식인 네트워크의 대중적 기반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

보시라이 사건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권력 획득을 추구하는 야심 있는 권력 엘리트들에게 이러한 대중적 기반을 가진 지식인 네트워크는 항상 권력 투쟁에 대비하는 상비군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 지도부의 카리스마와 조정 능력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어떤 시점에서 이러한 지식인 네트워크는 언제든 권력 엘리트와 결합해 중국 정치의 국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위자가 될 수 있다.

#### < 參考文獻 >

- <'08헌장' 대처 ... 돌로 쪼개진 중 지도부>, 《한겨레》 2009년 2월24일.  
 <중국 지식인 "인권·법치 약속하라"선언>, 《중앙일보》 2013년 2월28일.  
 <[천안문의 마르크스] ⑤ 중국 공산당의 미래>, 《한겨레》 2006년 4월30일.  
 <보시라이 지지 中 좌파사이트 운영 재개>, 《연합뉴스》 2012年12月9日.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2/09/0200000000AKR20121209067400103.HTML>)  
 김도희(2010), <지식계의 사회변혁 담론: 신좌파와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전성홍 편, 《체제전환의 중국정치》, 서울: 에버리치 홀딩스.  
 김도희(2007), 《전환시대의 중국 사회계층》, 서울: 폴리테이아.  
 김상배(2008), <네트워크 세계 정치이론의 모색>, 《국제정치논총》 제48집 4호.  
 마누엘 카스텔 지음(2009), 박행웅 옮김, 《네트워크 사회: 비교문화적 관점》, 서울:

한올아카데미.

맨슈어 올슨 지음(2003), 윤여덕 옮김. 《집단행동의 논리》, 파주: 한국학술정보.

백승욱(2009), 《세계화의 경계에 선 중국》, 서울: 창비.

서석홍(2008), <2004년 중국 량셴핑(郎咸平) 논쟁의 쟁점과 해석>, 《동북아 문화 연구》 제14집.

이광수(2012), <중국 온라인 공간에서의 지식확산>, 은종학 엮음, 《현대 중국의 지식생산 구조》, 서울: 길.

이문기(2010), “중국 지식인과 국가관계의 변천: 체제 수호세력인가 시민사회 추동세력인가?”, 전성홍 편, 《체제전환의 중국정치》, 서울: 에버리치 홀딩스.

이상국(2009), <중국 사이버공간의 정치적 경쟁 구도에 관한 연구: 좌파·우파·문화보수파의 웹사이트 하이퍼링크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4호.

이흥규(2012), <‘충칭모델’의 등장과 성과 - ‘중국모델’의 혁신의 관점에서 본 함의>, 《국가전략》 제18권 3호.

이흥규(2012), <보시라이 숙청과 충칭모델의 미래>, 《현대중국연구》 제14집 1호, 2012.

정현욱(2006), <중국의 인터넷, 키워야 할 기술인가, 자유바이러스의 ‘동지’인가>, 《민족21》 65호, (<http://www.minjog21.com/news/articleView.html?idxno=4510>)

최은진(2012), <중국의 담론지형 형성과 변화>, 은종학 엮음, 《현대 중국의 지식생산 구조》, 서울: 길.

<重慶的發展令人震撼>, 《大公報》, 2009年3月30日.

<重慶模式、經濟民主與自由社會主義——訪清華大學公共管理學院教授崔之元>, 《商務周刊》 2009年 第22期.

<北京烏有之鄉文化傳播有限公司>, 《企博網》

([http://wyxz.co.bokee.net/company/company\\_viewCompany/1478677.html](http://wyxz.co.bokee.net/company/company_viewCompany/1478677.html))

<十七大政治局委員會實行差額選舉嗎?>, 《多維新聞》 2007年8月6日.

(<http://society.dwnews.com/big5/news/2007-08-06/3144453.html>)

<中共中央關於建立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若干問題的決定>, 《人民網》 ([www.people.com.cn](http://www.people.com.cn))

<房寧:重慶“唱紅打黑”解>, 《人民論壇政論雙周刊》(總第344期) 2011年10月25日.

(<http://www.jinshashui.com/html/zqms/5569.html>)

<烏有之鄉>, 《維基百科》. (<http://zh.wikipedia.org/wiki/%E4%B9%8C%E6%9>)

C%89%E4%B9%8B%E4%B9%A1)

<陽帆: 烏有之鄉是如何走向極左的? >, 《共識網》 2012年3月31日.

(<http://www.21ccom.net/articles/zgyj/gmq/2012/0331/56660.html>)

<習近平: 空談誤國實幹興邦>, 《新浪網》 2012年11月30日.

(<http://news.sina.com.hk/news/20121130/-9-2836367/1.html>)

<周主任等重慶市公安局同志迎接烏有之鄉紅色网友>, 《博訊新聞網》 2011年 5月10日.

(<http://boxun.com/news/gb/china/2011/05/201105101342.shtml>)

陳子明, <憲政旗幟下的左右翼聯合陣線>, 《領導者》第18期. 《360doc網》

([http://www.360doc.com/content/11/0411/17/822062\\_108875253.shtml](http://www.360doc.com/content/11/0411/17/822062_108875253.shtml))

樊漢禎, 曹妍(2004), <網絡發展對知識分子政治參與的影響>, 《理論探索》 2004年 第2期.

甘陽(2000), <中國自由左派的由來>, 《明報》 2000年10月1日, 10月2日.

莫之許(2009), <北京·六四民主運動研討會簡報>, 《莫談國是》 2009年 5月16日.

(<http://www.bullogger.com/blogs/mozhixu/>)

齊墨 編(1991), 《新權威主義——對中國大陸未來運命的論爭》, 台北: 唐山出版社.

Li He, <中國的新左派及其對政治解放的影響>, 《豆瓣網》

(<http://www.douban.com/group/topic/4443504/>)

李平(2012), <路線鬥爭 從高層到百姓來源自>, 《蘋果日報》, 2012年 4月17日.

任劍濤(1999), <解讀“新左派”>, 《天涯》, 1999年 1期.

蕭功秦(2012), <當代中國知識分子的思想分化及其政治影響>, 《四月網》 2012年6月12日.

(<http://www.m4.cn/space/2012-06/1165350.shtml>)

蕭功秦(2010), <困境之礁上的思想水花——當代中國六大社會思潮析論>, 《社會科學論壇》 2010年 8期.

蕭功秦(2003), <中國改革開放以來政治中的自由派與保守派——兩極衝突及其歷史後果>, 《當代中國研究》 2003年 2期.

蕭功秦(2002), <“新左派”與當代中國知識分子的思想分化>, 《世紀中國網》 2002年1月 25日. (<http://www.cc.org.cn>)

蕭功秦(2001), 《與政治浪漫主義告別》, 武漢: 湖北教育出版社.

蕭功秦(1999), <民族主義與世紀之交的思想分化>, 《戰略與管理》 1999年 4期.

蘇僞, 楊帆, 劉士文(2011), 《重慶模式》, 北京: 中國經濟出版社.

王紹光(2011), <探索中國式社會主義3.0: 重慶經驗>, 《馬克思主義研究》, 2011年 第2期.

吳仁華(2012), <六四記憶: 我與生死弟兄劉蘇里>, 《獨立中文筆會》 2012. 6. 1.

([http://www.chineseopen.org/Article/hyxz/201206/Article\\_20120601061539.shtml](http://www.chineseopen.org/Article/hyxz/201206/Article_20120601061539.shtml))  
許紀霖(2011), <中國知識分子論>, 《ICCS Journal of Modern Chinese Studies》  
Vol.3 (1).

徐友漁(2007), <進入21世紀的自由主義和新左派>, 《當代中國研究》2007年 2期。

朱學勤(2003), 《道德理想國家的復滅-盧梭到羅伯斯庇爾》, 上海: 上海三聯書店。

張宏良, <高天宮袞寒流急, 大地微微暖氣吹——毛澤東誕辰115周年側記>, 《張宏良的博客》  
(<http://blog.sina.com.cn/zhl010>)

張衛東(2011), <網絡民意的崛起與中國政治生態的嬗變>, 《傳媒時代》2011年 7期。

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CNCC), 《中國互聯網絡發展狀況統計報告》2013年1月。

《天則經濟研究所》(<http://www.unirule.org.cn/index.asp>)

《天則公用事業研究中心》([www.ccppp.org](http://www.ccppp.org))

《中評網》(<http://www.china-review.com>)

《天涯社區》(<http://www.tianya.cn/search/>)

《萬聖書院網站》(<http://www.allssagesbooks.com/>)

David M. Lampton & Kenneth Liberthal eds.(1992), *Bureaucracy, politics and decision making in post-Mao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Edward X. Gu(2004), "Social capital, institutional change and the development of non-governmental intellectual organizations in China," Edward Gu and Goldman eds. *Chinese Intellectuals Between State and Market*, New York: RoutledgeCurzon.

Edward X. Gu(2000), "Plural Institutionalism and the Emergence of Intellectual Public Spaces in China: A Case Study of Four Intellectual Groups," Zhao Suisheng ed. *China and Democracy: The Prospect for A Democratic China*, New York: Routledge.

Geremie R. Barmé and Gloria Davies(2004), "Have we been noticed yet? -Intellectual contestation and the Chinese web," Edward Gu and Goldman eds. *Chinese Intellectuals Between State and Market*, New York: RoutledgeCurzon.

G. John Ikenberry(1988), "Conclusion: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American Foreign Economic Approach"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2, No. 1.

Katheleen Thelen and Seven Steinmo(1992),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Politics," Seven Steinmo, Katheleen Thelen and Frank Longstreth eds., *Structuring Politic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 ABSTRACT >

This paper is an analysis of Chinese intellectuals network's formation and differentiation the political and social impact in the Internet era. Since, Chinese intellectuals was greatly divided with the New Left and liberals since the 1990s, the ideological differentiation among them accelerated after the 2000s. The each group of Chinese intellectuals has been operating its own academic and social space, media, research institutions, etc, and now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make supporters crowd around the each group. Networks of Chinese intellectuals, built in both online and offline, is not only limited to intellectuals but is now expanding the connection with netizen (people) and the power elite. That is to say, intellectuals, netizen (people) and the power elite form a three-party combination on the basis of intellectuals network thorough online and offline. It means that the popularization of line struggle have been making by intellectuals network in contemporary China.

KEYWORDS: Chinese Intellectuals, Intellectuals Network, Popularization of Line Struggle, Internet Era

| 원고접수일        | 심사일정        | 1차수정         | 게재확정         | 출간           |
|--------------|-------------|--------------|--------------|--------------|
| 2013. 3. 30. | 2013. 5. 8. | 2013. 5. 19. | 2013. 5. 24. | 2013. 5. 31. |